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11. 7. 20(수) 11:00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배포일시 | 2011. 7. 20(수) 8:00  | 담당부서 |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      |
| 담당과장 | 나 석 권 (2150-4510)    | 담당자  | 김완수 사무관 (2150-4512) |

## 제목: 「2011년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」 개최

- 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.20(수) 10:00 정부중앙청사에서 「2011년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」를 개최하여,
- ‘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’, ‘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’ 등에 대해 논의함

### < ‘농산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하절기 에너지 절약’ 관련 >

- ☐ 박재완 장관은 길었던 장마가 주춤하고,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듯 하다면서
- 그 동안 발생한 농가 피해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주고
  -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하절기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함

### < ‘세계 경제’ 관련 >

- ☐ 박재완 장관은 최근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
- 미국의 일부 실물지표가 당초 예상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,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아직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

- 특히, 정책방향에 대한 내부갈등이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함
- 따라서,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되,
  - 최근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정치적 부담으로 위기상황에서 조차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
  -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만큼은 “치료(remedy)”는 정책대안이 아니며, “예방(prevention)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

#### < ‘햇살론’ 관련 >

- 박재완 장관은 오늘은 「햇살론」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
  -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서민 금융회사가 힘을 모은 결과, 그간 18.3만명에게 1.7조원을 대출하였다고 언급함
- 하지만, 실물경기와 체감경기간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서민의 금융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
  -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그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되,
  - 서민에 대해서는 햇살론, 미소금융,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

## < '2011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' 관련 >

- ☐ 박재완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「'11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」과 관련하여
- ☐ 규제개혁은 “활기찬 시장경제”를 구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(brand)와도 같은 정책이라고 언급하고
  - 그간 10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함
- ☐ 또한, 오늘 발표되는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맞춤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정책으로서, “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Pin-Point식 접근”이 필요하며
  - 앞으로도 Top-Down 방식을 통한 전반적인 규제관련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
  - Bottom-up 방식을 통한 “(i) 현장과 밀착된, 그리고 (ii)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”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

## < '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' 관련 >

- ☐ 박재완 장관은 중기청이 준비한 「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 방안」과 관련하여
- ☐ 36만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,
  -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통해 물가를 낮추는 효과\*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

\* 부전시장 등 부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경쟁을 통해 부산지역 물가가 전국 최저수준 기록('11.7.19일자 언론보도)

- 하지만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면서
  - 현재 전국 1,517개 전통시장 중 시장발전을 주도할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은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나,
  - 오늘 논의가 전통시장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의 배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명함
- 아울러 오늘 발표된 “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화”야 말로
  -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(一舉兩得)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“창의적 대안”이자,
  - 고용부(사회적 기업)와 중기청(전통시장)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만들어낸 “이종융합(異種融合) 정책”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
  - 앞으로도 모든 부처가 이와 같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함
- 한편, 오늘 오후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과 함께 수유재래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
  - 각 부처도 「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」과 같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함

#### **【붙임】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**

**기획재정부 대변인**

붙임

---

#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

---

2011. 7. 20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현황 .....       | 1 |
| II. 추진여건 .....               | 2 |
| III. 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화 추진방안 ..... | 3 |
| 1. 사회적기업 확산 .....            | 3 |
| 2. 사회적기업 육성 .....            | 5 |

# I 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 현황

- (추진배경) ‘장·차관 국정토론회’(6.17~18)시, 전통시장의 가치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배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화 방안을 제시
- (현황) 일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이나, 성과는 크지 않음
  - 전통시장 1,517개 중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 인증)은 없으며, 예비 사회적기업(지자체 인증)은 4개에 불과

\* 전체 사회적기업 수('11.5월말) : 532개(예비 사회적기업 : 1,005개)

## 《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 도입사례》

| 시장               | (예비) 사회적기업                 | 자본금  | 주주/직원수    | 수익모델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온양온천<br>전통시장     | (주)온양온천시장<br>(‘10.11월)     | 4천만원 | 270명/ 16명 | 주차장·홍보관<br>운영<br>온라인 쇼핑몰·<br>택배사업 구상중 | 충남도에서<br>인건비 지원<br>(5명×98만원)  |
| 부산<br>부전시장       | (사)날라리 낙타<br>(‘10.9월)      | -    | -/ 7명     | 점포운영, 문화<br>축제 기획·홍보                  | 부산시에서<br>인건비 지원<br>(6명×90만원)  |
| 충남<br>논산화지<br>시장 | 하늘땅영농조합<br>법인<br>(‘10.7월)  | 4억원  | 5/ 7명     | 밤과 대추, 딸기<br>가공 판매                    | 지자체 지원<br>없음                  |
| 광주<br>양동시장       | 광주광역시<br>상인연합회<br>(‘11.3월) | -    | 6/ 8명     | 야시장 조성 및<br>시장자체브랜드<br>출시 등           | 광주 시에서<br>인건비 지원<br>(8명×98만원) |

\* 광주 동부시장,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등에서 사회적기업 구상 중

## II

## 추진여건

### □ 전통시장내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상인조직의 역량 미흡

- 상인회가 있는 시장(1,333개) 중 상인회가 법적단체인 경우는 70.9%(846개)이고, 상근직원이 있는 시장은 40.4%(539개)에 불과

\*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는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비영리단체 등

<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형태 >

| 전체     |       | 법적 조직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| 임의단체<br>(번영회) | 조직<br>없음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|       | 등록<br>상인회 | 상점가<br>진흥조합 | 사업조합 | (민법상)<br>법인 | 계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시장수(개) | 1,517 | 812       | 20          | 15   | 99          | 946  | 387           | 184      |
| 비율(%)  | 100.0 | 53.6      | 1.3         | 1.0  | 6.5         | 62.4 | 25.5          | 12.1     |

- 상인조직의 운영재원 부족\* 및 상인의 자구노력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는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

\* 상인회비는 월평균 1만 4천원, 회비 납부율 92%

### □ 상인들의 경영능력\* 미흡 및 서비스 의식수준이 낮음

\* 상인회 주관 상인교육은 532개시장에서 실시(전체시장의 35% 수준)
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,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 부족

### □ 다만,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장·택배시스템 등 편의 시설 확충을 지원(2.1조원), 자생력 확보 시장이 점차 증가

('06년 168개 → '10년 264개)

- 이에 따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짐

⇒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화할 경우, 일자리 창출, 쇼핑 편의성 제고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

### III

## 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화 추진방안

### 〈 기본방향 〉

- ◇ 상인조직을 갖추고,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
- ◇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을 활용하여 '13년까지 (예비)사회적기업 100곳을 육성('11 : 10곳 → '12 : 30곳 → '13 : 60곳)

### 1. 사회적기업 확산방안

#### 1] 기 운영중인 전통시장의 예비 사회적기업 4곳을 우선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 및 표준모델 발굴·확산

- (주)온양온천시장은 상인교육 및 경영 컨설팅 제공, 문화체험관 등을 우선 지원

\* 주차장·홍보관을 운영 중이며, 온라인 쇼핑몰 개설·택배사업을 추진 중

- 양동시장은 택배시스템·공동창고 건립을 지원\*하여, 사회적기업의 활동기반을 마련

\* '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반영

- 부전시장, 화지시장은 세일·판촉활동 등 공동마케팅 활성화 지원

#### 2] 기초여건을 갖춘 상인회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

- 상인회가 자체 수익사업\*을 추진중인 시장(145개)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를 통해 금년에 시범사업 시장 선정

\* 주차장 운영(95개시장), 배송서비스(19개시장), 자판기운영(13개시장) 등

- 내년부터는 시장경영혁신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수익창출 유도

○ **문화관광형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도입 유도**

- 금년에 상인회 중심으로 지역별 전통문화·관광상품과의 연계 행사 등을 기획·운영하는 **사회적기업 6곳을 발굴·육성\***

\* '1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(70억원)을 활용

**③ 상권활성화사업\*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창업 환경 조성**

\*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연계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중 7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반시설 구축과 경영개선 지원

○ **상권활성화사업의 시행주체인 「상권관리기구」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화 추진**

\* 상권관리기구는 금년말까지 상인회·지자체·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될 예정

- 내년부터 **상권활성화사업의 예산을 활용**, 상권관리기구의 사회적기업화를 지원하여 **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강출**

\* 상권활성화구역 : ('11) 7곳 → ('12) 4곳 → ('13) 3곳

**< 상권관리기구의 사회적기업 외국사례 >**

- (일본) 주식회사 '마치즈쿠리 미타카'는 1999년에 지역기업과 시민단체, 대학 등의 협력으로 설립된 **도쿄 미타카시의 상권관리기구(TMO)**
  - 지역소재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네트워크화를 촉진, 지역의 환경 문제, 복지·교육제도 등에 시민참여를 중시한 상권활성화를 추진
  - 주차장, 소호사업지원 시설, 지역 정보센터,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갖춰 상권의 중심적 거점과 수익적 사업을 동시에 실현

## 2. 사회적기업 육성방안

### □ 상인조직의 사회적기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강화

- 지역공동체의 향토·문화·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\*(행안부)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

\* 6월말 현재, 516개 기업('11 정부예산 : 124억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례 | 대구서남신시장 부르미서비스 콜센터 운영 : 장보기대행서비스, 배달서비스, 일손 도우미 서비스(건당 3천원) 등을 통해 수익창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사회적기업화 노력을 진행 중인 시장은 우선지원

- 사회적기업의 위탁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 및 택배시스템 설치 신청시장 우대

### □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

- 하반기부터 상인대학\*이 설치된 시장(100곳)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을 설치

\* 상인회 사무실을 활용하여 친절서비스, 경영기법 등을 교육(연 60시간)

- 내년부터 「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」 지원시 경영자문 및 사회적기업 운영인력 우선 채용 추진

- 사회적기업 운영 우수시장을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실시

\*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(연 1회), 지역상품 전시회(연 5회), 시장정보지(격주 6만부)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유공자 포상

## □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

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개정\*에 맞춰,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영리형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지원('12.1)

\* 상인조직 형태가 대부분 비영리단체이므로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개정 '11.7, 시행 '12.1)

\*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: 영리법인 40%, 비영리법인 60%

-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(지역신보, 새마을금고), 신용보증 등 제공 가능

## □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마련

- 지역신보를 통해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운용('12.1)

-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평가체계를 특화

### <상시 특별보증 운영 계획(안)>

- (보증비율 확대) 85%(일반) → 90~100%(특별)
- (보증료 인하) 1.2%(일반) → 0.5%(특별)
- (평가체계 개선) 재무 및 자산 위주 평가(일반) →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 등 위주 평가(특별)

## □ 자금지원(융자) 규모 확대

-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규모 확대('10년 75억원 → '11년 100억원)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('10년 50억원 → '11년 100억원)하고, 신청절차도 월별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개선